



## 경고의 뉴스레터 “나팔”

발행일 : 2015년 4월 발행 (제 6호)

발행 : 경고의나팔 출판

가격 : 100엔 (배송료 포함 200엔)

나팔 HP: <http://www.geocities.co.jp/Technopolis-Mars/5614/>

-----  
목차:

◎권두 메시지 '태양을 입은 여자' 예레미야

◎간증 '맹세'

◎알림 코너 '신간 서적 소개'

-----

### <권두 메시지>

'태양을 입은 여자' 예레미야

이번에는 '태양을 입은 여자'로서 이 글을 메시지 나가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텍스트는 요한 계시록 12 장 1 ~ 9 절 부분입니다. 이 성경 구절을 한 절씩 살펴 보자.

**요한복음 12:1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의 있는 곳이라**

성경은 비유에 의해 작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요한 계시록은 그렇습니다. 태양을 입고 달을 발 아래 밟는 거대한 여자 같은 사실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유를 이해하고 처음으로 그 의미를 알고 있습니다. 주님은 다음과 같이 비유하여 기독교인이 구분되는 것을 말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3:10 ○ 제자들이 예수께 나아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13:11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되었나니**

**13:12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13:13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 깨닫지 못함이니라

여기를 읽어 알 수 있듯이 성경, 특히 요한 계시록이 비유로 쓰여져 있는 이유는 그리스도인 사이에 구분을 위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 된 사람들에게는 진리가 열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에는 막힐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비록 이해를 요구합니다. 그런데 이 구절이지만, 여기와 비슷한 부분이 구약에 있습니다. 다음 부분입니다.

**창세기 37:9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들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또 꿈을 꾀즉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37:10 그가 그 꿈으로 부형에게 고하매 아비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너의 꾀 꿈이 무엇이냐 나와 네 모와 네 형제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네게 절하겠느냐**

### <이 여자는 하늘 교회를 가리키다>

이 구절에서 **"열두별"**은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말합니다. 신약에서 말한다면, 신약의 이스라엘인 기독교를 가리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태양"** **"달"**은 부모, 즉 믿음의 조상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 하나님은 다음과 같이 아브라함에게 예언했습니다.

**창세기 22:17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여기에서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이 **"하늘의 별"** **"땅의 모래"**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이스라엘도 또한 신약의 이스라엘인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으로 하늘의 별, 땅의 모래에 비유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늘의 별처럼 하늘 인 기독교인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지만, 그러나 땅의 모래처럼 땅에 사는 같은 기독교, 세상적인 그리스도인 이것도 일단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이제 위에서 태양을 입는 여자에 관하여 이 관점에서 볼 때 하나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태양'** **'달'** **'별'**이라는 이 여자를 형용하는 말은 모두 하늘에 속하는 것 인 것입니다. 반대로 모래, 돌, 바위는 땅에 속한 같은 말은 이 여자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자"**는 교회를 가리키는 비유입니다. 따라서 이 여자, 즉 교회는 '하늘의 교회'를 가리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후의 설명은 이 여자가 용에 의해 박해 될 수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에 말하려고 하는지 묘사하려고 하고있 는 것은 종말의 날에 있어서 하늘 교회 그리스도인 고난, 환난입니다. 종말의 날에 관련하여 명확하게 이해해야 한다 수 있습니다. 그것은 종말의 날에 모든 크리스천들이 환난을 만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환난을 만나는 것은 하늘의 교회 그리스도인이며, 어디 지나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기독교인이 환난을 만날 날이 환난 시대입니다. 반대로 땅에 도착 기독교, 세상의 논리로 움직이는 그리스도인들은 박해를 만나고 없습니다. 즉 동성애를 인정하거나 이슬람교도 구원이 등이란 사람들은 그날 박해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요한복음 12:2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보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진통"은 다음 말씀에 의하면, "환난 시대의 고통"입니다.

**마태복음 24:8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래서 이 하늘 교회는 환난 시대의 고난을 만나고 있습니다.

<세계 기독교인은 짐승의 나라 미국에서 시련을 만난다>

**요한복음 12:3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이 짐승은 다니엘서와 계시록 13 장에 예언 된 종말의 짐승의 나라입니다. 이 악마적인 국가는 종말의 날에 세상을 지배하고 전 세계의 교회를 관리 복종시킵니다. 악마의 의사를 실시해, 전체 교회 적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전 세계 올바른 하늘 기독교인은 박해를 만납니다. 다음의 말대로 종말의 환난은 전 세계에 걸친 것이며 예외는 아니라 환난 전에 끝나다 수 없습니다. 모든 국가 그리스도인들은 그 날에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3:10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

그 짐승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라고 묻는다면, 그것은 세계의 군사 대국 미국입니다. 현재 자꾸 올바른 그리스도인에 대한 박해, 체포를 진행하고 있는 미국 이야말로 그 나라이며, 나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4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 줄 가롯 유다가 말하되**

'별을 땅에 떨어뜨리는'이란 하늘의 기독교인을 땅의 것, 세상적인 것으로 하고 버리는 것을 비유입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이것이 정부 주도로 자꾸 진행되고 있습니다. 땅의 세상적인 논리가 그리스도인들에게 강제되고 따르지 않는 자는 체포조차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에 따라 노방 전도하는 기독교인은 체포되어 성경에 따라 동성애 집회에 반대하는 기독교인은 체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논리 땅의 논리에 따라 동성애를 수용 그리스도인들은 박수 갈채되어 있습니다. 이런 공갈, 체포, 강제에서 많은 하늘의 기독교인이 땅에 떨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5 이 향유를 어찌하여 삼백 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 "소년"은 계시록 11 장의 "두 사람의 예언자"와 비슷합니다. "그 보좌에 끌어 올려졌다"는 문장 다음의 휴거를 가리키는 표현과 같은 그리스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소년이 순교 휴거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17 그 후에 우리 살아 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 소년, 즉 계시록 11 장의 두 사람의 예언자는 3 년 반 동안의 선교 순교 부활, 휴거를 경험합니다. 이 행보는 과거의 일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희망의 소년 예수, 즉 3 년 반 선교 순교 부활, 휴거 (승천)을 열린 예수와 같은 행보입니다.

<그날은 광야 지하 교회에 도망쳐야한다>

**요한복음 12:6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도적이라 돈 궤를 맡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감이러라**

여기에 1260 일 (3 년 반) 동안 광야에 여자가 도망 것이 쓰여져 있습니다. 다음 부분에도 여자가 3 년 반 환난 시대를 광야에서 지켜 질 수 그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환난 시대에는 하늘 교회는 그 날 배교의 교회를 나와 광야 지하 교회에서 하나님에 의해 길러지는 것이 맞는지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2:14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만나서 타시니**

"독수리의 날개를 타고"라는 말과 같은 표현이 다음 출애굽기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19:4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이 구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할 때의 설명입니다. 그래서 종말의 날에 출애굽을 재현하는 듯합니다. 「출애굽기」란 어떤 것인가? 라고하면, 이집트에서 고통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그곳을 떠나 하나님을 섬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때 이집트 왕 파라오는 결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나온 시키려고는 하지 않았습니니다. 다음과 같습니다.

**출애굽기 7:16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네가 듣지 아니하도다**

하나님의 명령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 광야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로가 하나님의 백성을 이집트에서 내는 것을 여러 번 거부했습니다. 같은 일이 종말의 날에

일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날 공공의 교회는 다음의 말처럼 소돔 화 이집트 할 수 있습니다. 소돔과 같이 동성애를 수용 세상적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1:8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그리고 올바른 그리스도인이 이집트 된 교회에서 나가는 것을 금지합니다. 지금 미국에서 공식 교회에 다니지 않고 자신의 집에서 가정 집회를 하고 있던 기독교인이 체포되거나 벌금을 부과되기도 합니다. 이 것은 바로 광야에 나서려는 하나님의 백성을 세울 바로의 실시로 통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지는 있어도 그 날 올바른 기독교인에게 하나님의 명령은 모세 때와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그 날에 옛 출애굽의 날처럼 출애굽하여 광야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 구체적으로는 배도 교회를 나오고, 지하 교회에서 주님께 봉사 가는 것을 알고 합시다.

**<주님도 지하 교회에 대해 조언해 계신다>**

종말의 날 배교의 교회를 나가야 할 실은 이것은 종말의 날의 중요한 포인트이며, 주로도 다음과 같은 것을 권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4:15 ○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의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24:16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24:17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질러 내려 가지 말며**

**24:18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질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여기에 비유하여 배교의 교회로 돌아 가기 안 된다고 말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망할 자" "적 그리스도"의 것이며, "거룩한 곳"은 "그리스도가 교회에 앉아 있던 신의 자리"입니다. 그날 교회는 배교 그리스도를 쫓아 적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자리를 맞게 됩니다. 그 날에는 산으로 도망 집안에 돌아 오지 않을 것을 권장합니다. 가정은 하나님의 집이다 교회의 예입니다. 변질 적 그리스도를 영입 한 배도의 교회로 돌아 오지 않을 것을 비유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옥상에 있는 자"라 함은 "초막절"을 전제로 한 말씀입니다.

"초막절"은 집의 옥상이나 신전의 정원 등에 올리브 등의 나뭇가지에서 임시 암을 만드는 축제입니다. 다음의 말씀과 같습니다.

**느헤미야 8:16 백성이 이에 나가서 나무 가지를 취하여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 뜰에 혹은 수문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짓되**

이 축제는 암시적인 축제이며, 집이 있는데 거기에 살지 않고 "임시 암"을 만들고 거기에 사는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이 축제는 '지하 교회'를 가리키는 비유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집, 즉 교회가 있는데 거기에는 돌아 가지 않고 옥상, 즉 초막절 지하 교회에 체재, 그리고 가르침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종말의 날의 중요한 포인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음의 말처럼 공공의 교회가 배도 화 해 버려, 적 그리스도를 경배하게 될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제 교회는 그리스도를 기반으로 올바른 가르침도 구원도 없어서 버립니다. 그러므로 그 날 올바른 그리스도인들은 광야 초막, 즉 지하 교회를 만들고 거기에 걸려야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3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배교의 교회에 체재자는 영생을 잃게 된다>

"옥상에 있는 사람은 집안의 물건을 가지고 나가려 아래로 내려가려 하지 않습니다." 또한 **"밭에 있는 자는 옷을 가지러 다시는 안됩니다."**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날, 집, 즉 공공의 교회는 적 그리스도를 경배 배도의 교회입니다. 이다 따라서 비록 공공 교회에서 그날 얼마나 매력적인 권유 또는 급료 나 또한 높은 지위 등을 약속하고도 거기에 다시 말아야 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미련이 그 어진도 아까운 일이 있어도 돌아 가기 안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공공의 교회는 모두 여기 저기도 강제로 적 그리스도를 경배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적 그리스도를 경배 그리스도인들은 영원한 생명을 잃게 됩니다. 그러므로 얼마나 매력적인 조건을 꺼내도 거기에 다시,라고 주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지하 교회에 많은 계시와 진리가 열린다>

**요한복음 12:9 ○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러라**

"그 옛 뱀"은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속여 하나님의 말씀을 구부리고 영원한 생명을 앗아간 뱀에 통합합니다. 또한 주로 **"뱀이여 독사의 자식이여"**고 질타 된 거짓 교사인 서기관, 바리새인으로 통합합니다. 즉 거짓 교리 나 가르침은 하늘 곧 하늘 교회에서 일소되는 것이 여기서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의 교회를 나와 지하 교회를 만드는 것은 실은 대단한 은혜와 주님의 축복에 들어가는 행보에 통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날 큰 계시와 빛이 지하 교회에 모이는 사람들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이 계시록 12 장의 "태양을 입는 여자"에 관한 부분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환난

시대에 하늘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일어나는 것을 미리 예언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최종선, 중요한 포인트는 그날 전세계 교회는 짐승의 나라 미국의 강제 나 구속, 압박 속에서 그리스도를 버리고 적 그리스도를 경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의 기독교인은 거기에 걸려야 아니라 광야 지하 교회에 나가야 하는 것이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행보를 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큰 독수리의 날개, 즉 성령의 보호와 도움이 것이 약속되어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약속 경고에 귀를 기울이고 종말의 올바른 행보를 하고 갑시다.



**집에서 성경 연구회를 열었다가 벌금이 부과 된 캘리포니아의 부부**

간증 "맹세"

결혼식 때의 '맹세'라고 하는 것을 떠 올릴 것입니다. "건강한 때도, 병든 때도 상대방을 사랑합니까?"라는 것을 신랑 신부가 목사와 신부는 묻습니다. 그 때 모두 "예"라고 대답합니다. 반대로 그렇지 않을 때 큰 문제로 발전하기 어렵지 않아요?

덧붙여서, '성경'에서도 '맹세'라는 말이 자주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 이야기를 한 것은 그대로 긍정하고 간다면 좋은 의미에서의 '맹세'입니다. 모두에게 동의한다면 혼인이 성립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히 땅에서도 결혼 할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그것뿐만

아니라 이 육신의 생명을 이탈 한 뒤, 모두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도록 부름 있습니다. "그런 설명되지 않아도 알고 있어!"라고 하실지도 모릅니다만, 아무래도 기본은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 복음이나 야고보서를 읽고, 아무래도 "맹세"라고 하는 통해 "영원한 생명"을 잃을 기독교인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누가 그런가? 같은 건 몰라, 하지만 "맹세"하여 자신을 비롯한 많은 기독교인이 "영생"을 아시나요 버리면 큰일이다! 생각대로여서 이렇게 붓을 달리게 하는 것에 있습니다. 괜찮으시다면 계속 읽어 주셨으면 합니다.

올해 들어 오전 예배 야고보서에서 '맹세'에 대한 메시지를 예레미야 목사가 말씀했습니다. 그 때 "이것은 매우 중요한 말씀이니 언젠가 전해야!"라는 생각이 마음에 와 있었으므로, 그 사실을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말씀을 살펴 보자.

**야고보서 5:12 ○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의 그렇다 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 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죄 정함을 면하라**

위 말씀을 통해 다음과 같은 것을 예레미야 목사가 메시지되어있었습니다.

"하늘"과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것은 "교회를 가리켜 맹세는 안돼!"라고 하는 것을 알려져 있습니다. 앞으로 '공공의 교회'는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 때 "이 사람은 적 그리스도를 경배 하는가? 그렇지 않은 것인가?"가 요구되고 그것이 그대로 "맹세"입니다. 그럴 때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유혹이 올 것이다. 어떤 미혹합니까? 라고 하면, "우선은 맹세 해놓고, 나중에 회개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함정'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그렇다'는 '그렇다', '아니오'는 '아니오'라고 해야 안됩니다. 어디 선가 분명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따라서 "공공의 교회"에서 빨리 나가게하고 싶습니다. 어느 쪽도 "하늘"을 가리켜 맹세에 대해 "예" "예" "아니오" "아니오"라고합니다. 당시에 말했다 "맹세의 말씀"이 하나님도 사탄도 인정 버리기 때문입니다.

갑자기 이런 일을 듣고 즉시 납득할 수 있는지 여부는 제외하고... 그러나 예레미야 목사가 말하고 있는 것은 거짓말이 아니라 이미 그런 징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 교회에서는 501C3 교회법이라는 것을 도입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어떤 것인가? 라고 하면, 정부의 말을 듣고 교회에서는 세금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이라고 합니다. 보기 들으면 왠지 좋을 것입니다 만, 그러나 들은 바에 의하면 그 실태는 모두 그리스도의 부활과 동정녀 탄생을 부정하는 것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법안을 받아들이는 것은 성경의 말씀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에 대해서가 아니라 정부의 말에 맹세 세우고 있다는 식으로 하나님 앞에 간주되어 버릴 가능성이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만일 "정부의 말을 따르십시오!"라고 말씀에서 분명하게 말하지 않아도, 그러나 그 법안을 받아 들일 그대로 "맹세"결정 통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은 미국뿐만 아니라 앞으로 전세계적인 규모로 진행되고 간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일본도 예외는 아닐 것입니다. 일본에서도 이미 일부 교회에서는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해



부정하고,"동성애 "목사님을 교회에 초대하거나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것에 대해 어떤 식 태도를 나타내는지에 대해 앞으로 그리스도인이 요구되는 시대에 들어간다는 것을 야곱은 서한을 통해 2000 년 이상 전에 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뭔가 짐작이 있으시면 예레미야 목사가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교회에서 멀어 편이 좋은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덧붙여서 '그 외'의 곳은 KJV 역에서는 "다른 맹세"혹은 "다른 신"이라고 합니다. 이 말씀에서 "적 그리스도"를 연상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적 그리스도는 복음서에서는 "망치 역겨운 사람"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와 관련하여 일찍이 예수님은 복음서에서 **"예언자 다니엘을 통해 말씀하신 그 "망할 자"가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 때 유대에 있는 사람들은 산으로 도망하라"**라고 했습니다. "거룩한 곳"는 "교회"(공식 교회)의 것으로, '산'은 '지하 교회'의 것을 말합니다. 즉 적 그리스도 석권 한 교회에서 나가십시오! 그리고 지하 교회에 들어가십시오! 말을 하는 것입니다. 뒤집는다면, 적 그리스도 서약 같은 교회에서 나오지 않고 그대로 남아 이때 그대로 '맹세'를 세우게 되어 버린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심판"을 만나고 있어요! 라는 결말이 되는 것은 아닐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심판을 만나지 않기 때문입니다"**의 "심판"의 곳도, 만약을 위해 말은 무엇이며 KJV 번역도 확인했는데, '유죄 선고에 떨어진다 "고 적혀있었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죽음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후 만약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라고 되어 버린 경우 하늘 나라를 잇는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내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아마도 무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결론을 말해 버리면 장차 짐승의 나라 미국의 교리와 영혼을 받아 들일지 여부? 말씀보다 정부의 말과 교회 정책에 따르는 것인지? 적 그리스도를 경배 여부? 요점은, 말씀이 말한대로, "맹세" "맹세하지 않는다"는 것이 "영원한 목적지"를 결정 지었다 버릴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 근처를 명심하면서 걸어 가고 싶 생각합니다.

성경에서 의미 없이 「맹세」라든지 「산 (지하 교회)」에 쓰여져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또한 앞으로의 시대를 살아가는 기독교인에게 경고로 이러한 일이 알려져 있다 것은 제대로 파악하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맹세'에 대해 경시하는 일없이, 그 날이 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에 대해 지금부터 진지하게 생각한다면, 나중에 당황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성경에서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추천되고 있는 것처럼... 괜찮다면 그런 날이 오기 전에 "초막절"(지하 교회)에 들어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있다는 이상한 생각합니다. 이번에도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영예가 있기를 빕니다.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을 경배하고 자기 이마 또는 손 또는 각인을 받는다면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의 잔에 섞어 물 없이 쏟아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신다. 또한 거룩한 천사들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통받게 된다. (요한 계시록 14 장 9, 10 절)